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



류현진(LA 다저스)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MLB 코리안리거 “후반기 도전 계속”

전반기 총 6명 활약... 올스타 휴식기 돌입

미국 메이저리그(MLB)가 10일(한국시간) 경기를 끝으로 올스타 휴식기에 돌입한다. 2017 시즌 전반기 총 6명의 코리안 빅리거가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활약했다.

하지만 꾸준히 기회를 부여 받은 확실한 주전급 선수는 절반에 불과하다. 더그아웃을 주로 지켰고, 일부 선수들은 전반기 막판 겨우 기회를 잡았다.

◇추신수·류현진, 건강하다면 실력 의심 없다...후반기 기대

지난해 부상으로 고전했던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는 건강하게 시즌을 보내면서 한국인 타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추신수는 지명타자와 우익수 자리를 오가며 팀 사장에 따라 다양한 타순에 배치됐다. 지난해 48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올 시즌 전반기에만 78경기에 나섰다.

타율은 0.250(288타수 72안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12홈런 42타점 7도루로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출루머신답게 출루율 0.363은 팀내 1위다. 추신수로서는 2015 시즌 후반기 활약을

재연하고자 한다.

당시 올스타 휴식기 전까지 타율 0.221로 극심한 타격 부진을 겪었지만 후반기 타율 0.343으로 반등하며 부활했다.

추신수는 후반기 놀라운 반전 활약으로 9월 아메리칸리그 이달의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 시즌 한국 야구팬들에게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은 지난 2년 간 부상 공백을 깨고 마운드에 선 류현진(30·LA 다저스)의 복귀다.

류현진은 복귀 자체가 비관적이었다. 시범경기부터 서서히 시동을 건 그는 시즌 개막과 함께 투수 왕국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 한축을 담당했다.

전반기 14경기(13경기 선발)에 등판, 3승 6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1의 성적을 기록했다.

패스트볼 구속이 들쭉날쭉하며 경기당 1개가 넘는 15개의 피홈런을 허용했다.

2년의 공백을 감안하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후반기 경기력의 기록을

줄이고 안정된 피칭을 한다면 예전의 위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다.

◇클로저 오승환, 불안불안, 김현수는 입지 흔들

빅리그 골판양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올 시즌 개막전까지만 해도 코리안 빅리거 가운데 가장 큰 기대를 받았다. 지난 시즌 후반기 팀의 뒷문을 완벽하게 책임지면서 한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도 골판양의 명성을 이었다.

하지만 시즌 첫 등판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지난해와 달리 철벽 마무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자 최근에는 트레이너 로렌탈과 뒷문을 번갈아 맡기도 했다. 후반기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보직 변경 가능성은 여전하다.

2년 차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는 팀내 철저한 ‘플래툰 시스템’에 따른 희생양이다.

지난해 95경기 타율 0.302 6홈런 22타점을 올려며 연착륙에 성공한 김현수는 올 시즌 전반기 51경기 출장에 그치고 있다. 외야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타격감을 유지하는데 애를 먹었다. 타율은 0.229(118타수 27안타)에 그쳤고, 홈런은 1

개에 불과했다.

현지 언론은 ‘김현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바엔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올 시즌을 끝으로 볼티모어와 계약이 만료되는 김현수로서는 빅리그 잔류를 위해서는 후반기 반등이 관건이다.

◇새내기 황재균·빅리그 복귀 최지만, 후반기 스타트 중요

지난 시즌 전반기 빅리그에서 활약한 한국 선수는 역대 최다인 8명이었다.

올 시즌에는 반포라 나면서 4명 팀이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려 침체를 겪는 듯 했다. 그러나 전반기 막판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과 최지만(26·뉴욕 양키스)이 잇따라 빅리그 무대로 콜업되면서 기회를 잡았다.

후반기에도 당분간 빅리그에서 뛰며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즌 중반 주전급 선수들의 부진과 부상으로 기회를 얻은 만큼 보다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후반기 시작과 함께 팀내 눈도장을 찍는 것이 시급하다.

WKBL이사벨 해리슨, 1순위로 KEB하나은행행

여자프로농구 KEB하나은행이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센터 이사벨 해리슨을 선발했다.

KEB하나은행은 1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2017~2018 WKBL 외국인선수 선발회'에서 전체 1순위로 이사벨 해리슨을 뽑았다.

192cm 신장의 이사벨 해리슨은 WNBA 샌안토니오 소속으로 이번 시즌 평균 10.6점 5.2리바운드 1.4어시스트 1블록 0.9스틸을 기록했다.

KDB생명은행은 2순위에서 주얼 로이드(178cm)를 선발했다. 로이드의 포지션은 가드다. 노블담대학교를 졸업하고 2015년 전체 1순위로 WNBA 시애틀에 지명돼 그 해 신인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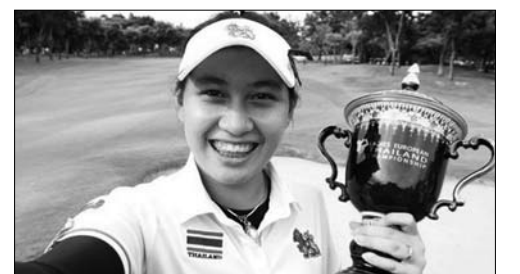
신한은행은 3순위에서 포워드 카일라 쏘튼(185cm)을 뽑았다. 쏘튼은 2016~2017 KEB하나은행 교체선수로 WKBL을 경험한 바 있다.

4순위 KB스타즈는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 센터 다미리스 단타스(193cm)를 선발했고, 5순위 우리은행은 지난 시즌 팀을 우승으로 이끈 가드 쉐키나 스트라텐(188cm)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다.

역순으로 진행된 2라운드 1순위에서 우리은행은 포워드 티아나 하킨스(192cm)를 선발했다.

KB스타즈는 가드 모니크 커리(182cm)를 뽑았다. 평균 두자리 수 득점(10.6점) 4.2리바운드 2.0어시스트를 기록중인 커리는 KB의 선택을 받아 5년 연속 WKBL 무대를 누리게 됐다. 2라운드 3순위 신한은행은 포워드 르산다 그레이(188cm)를 뽑았고 4순위 KDB생명은 센터 산체 블랙(195cm), 5순위 KEB하나은행은 가드 자즈몬 파트(188cm)를 선발했다.

/김민근기자



‘태국소녀’ 티티쿨, 여자프로골프 최연소 우승

만 14세 4개월의 태국소녀 아타야 티티쿨이 여자프로골프 최연소 우승 기록을 새로 썼다.

티티쿨은 9일 태국 파타야 피닉스 골드 골프 앤드 컨트리 클럽(파72)에서 끝난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타이랜드 챔피언십에서 5언더파 288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2008년 2월 20일생인 티티쿨은 만 14세 4개월 19일 만에 세계무대 정상에 올라 종전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2012년 호주여자프로골프투어 뉴 사우스 웨일스오픈을 제패할 때 기록한 14세 9개월을 4개월여 앞당겼다.

티티쿨은 2013년 뉴질랜드 오픈에서 15세 9개월의 나이로 우승한 리디아 고의 LET 최연소 우승 기록 역시 갈아 치웠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최연소 기록 역시 리디아 고가 2012년 캐나다 오픈 우승으로 기록한 15세 4개월이다.

티티쿨은 세계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지만 아마추어 신분이기 때문에 우승 상금은 다른 선수의 몫이 됐다.

우승 상금 4만5000유로(약 6000만원)는 2위를 한 안나 매넨데스(멕시코)가 차지했다.

한편, 역대 남자프로골프 최연소 우승 기록 역시 태국 선수가 갖고 있다. 파타야 롱윙하이(18세 세계랭킹 186위)는 2013년 7월 아세안PGA투어 ‘싱가 후아윈오픈’에서 우승했다. 당시 그의 나이 14세 2개월이었다.

/김민근기자

女배구, 그랑프리 1주차 2승1패... 2주차 ‘총력전’

홍성진 감독 “폴란드전 초점 맞춰 다시 한번 힘 발휘 할 것”

2017 국제배구연맹(FIVB) 그랑프리 세계 여자배구대회에 나선 한국대표팀이 전초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2주차 총력전을 예고했다.

홍성진 감독이 이끄는 여자 배구대표팀은 지난 9일(한국시간) 불가리아 루세에서 열린 2017 국제배구연맹(FIVB)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제2그룹 A조 조별리그 3차전 카자흐스탄과의 경기에서 3-0(25-12 25-19 25-14)으로 승리했다.

1차전에서 독일을 물리친 한국은 불가리아와의 2차전에서 폴세트 끝에 패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조직력이 무너진 것이 패인이었다. 선수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 김연경이 공수에서 압박을 느끼면서 공격성공률이 떨어졌다.

절치부심한 한국은 카자흐스탄과의 경기에서 주도 박정아와 김연경을 앞세워 완승을 거뒀다.

박정아는 16점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다. 리시브도 불가리아전에 비해 살아났다.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는 지쳐 보였지만, 몸놀림이 무겁지는 않았다.

홍성진 감독은 2주차 경기를 위해 선수

들을 고루 기용,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했다. 선수들의 체력 대비도 염두했다.

홍 감독은 “선수들의 컨디션은 아직 괜찮다. 그래도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선수들을 기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폴란드로 넘어간다. 총력전이다. 가장 힘든 경기는 폴란드전이라고 생각한다. 폴란드전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겠다”고 투지를 불태웠다.

김연경은 “2주차 경기에서 2승 이상의 성적을 올려 결선 라운드에 진출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